

『남약증치방』과 『언해남약증치방』 현존본의 서지적 연구

Bibliographic Study of Existing
Nabyakjeungchibang(臘藥症治方) and *Eonhaenabyakjeungchibang*

이 정 화 (Lee, Jeong-Hwa)*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남약증치방』과 『제중신편』의 ‘내국’
인용 |
| 2. 『남약증치방』의 편찬 및 간행 | 4. 결 언 |
| 2.1 『남약증치방』 편찬 | <참고문헌> |
| 2.2 『남약증치방』 내용과 특징 | |
| 2.3 『남약증치방』 간행 및 현존본 | |

< 초 록 >

『남약증치방』과 『언해남약증치방』은 응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제를 미리 만들어 보관해 두었다가 긴급하게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한약체제의 복용법과 금기사항을 기록한 일종의 투약지침서이다. 이 문헌은 『태의선생안』의 기록에 근거하여 허준(1539~1615)이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남약증치방』에 수록된 약제가 2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보감』에도 수록되어 있는 점에도 근거한다.

남약증치방 간행 목적은 남약증치방의 말미에 있는 기록인 “~ 멀리 떨어진 외방이나 궁벽한 시골에서 비록 의약을 얻었다 할지라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해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한다. 이에 고전방서에서 요긴한 말들을 가려 뽑아 책으로 찍어 전하는 것이다.”라는 문구에서 확인하였다.

현재 『남약증치방』은 한문본과 언해본 2종 모두 보존되어 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합본된 형태나 보관 상태, 표제 서명 등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남약증치방』이 내의원의 처방인 남약의 복용방법과 금기를 안내한 의서라는 측면에서 1799년 간행된 『제중신편』의 내의원 처방인 ‘내국’ 인용과도 연결된다. 이 두 의서는 궁중의 처방인 내의원의 처방을 궁벽한 시골에 사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애민정신을 읽을 수 있다. 『제중신편』에서 ‘내국’이라 인용된 처방을 『언해남약증치방』에 나타난 처방과 비교 검토하여 보니 36종의 내국 처방 중 17종의 처방이 『언해남약증치방』에 중복하여 수록되어 있었다.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나온 심사평 가운데 『동의보감』의 17세기에 이미 예방의약의 개념이 천명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응급약을 미리 조제하고 백성에게 그 복용법을 알린 『남약증치방』 역시 당대 조선의학이 이룩한 의학사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要語: 『남약증치방(臘藥症治方)』, 『언해남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 『제중신편(濟衆新編)』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지식문화연구그룹 선임연구원(jhlee@kiom.re.kr)

접수일: 2013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Nabyakjeungchibang and *Eonhaenabyakjeungchibang* are medication guidelines wherein the administration and contradictions of oriental herbal medicine are written so that medicines for emergency conditions are prepared and stored beforehand and used in case of emergency. A predominant view is that this literature was written by Heo-Jun (1539~1615) based on the record of *Taeuiseonsaengan* and the fact that medicines listed in the *Nabyakjeungchibang* were all listed in the *Donguibogam* except two.

The purpose of publishing *Nabyakjeungchibang* was indicated at the end of the book: “~ people in faraway districts or remote countryside have difficulties in using medicines although they have them. Thus, important phrases from classic prescription books are selected and published as a book for distribution.”

Currently, two versions of *Nabyakjeungchibang* - the Chinese version and Korean annotated version - have been well preserved and passed dow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Ewha Women's University have copies, all of which seem to be the same edition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binding type, storage condition, or title signature.

Since *Nabyakjeungchibang* is a medical book that introduces the administration and contradictions of Nabyak, which is a prescription of the medical bureau for the royal family, it is connected to the quotations of “Naeguk,” also the prescription of the medical bureau for the royal family, in the *Jejungshinpyeon* published in 1799.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se two medical books revealed the prescriptions of the medical bureau for the royal family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remote countryside, the love for people by relieving them from diseases can be understood. When prescriptions quoted as “Naeguk” in the *Jejungshinpyeon* were compared with prescriptions in the *Eonhaenabyakjeungchibang*, 17 out of 36 prescriptions were listed in the *Eonhaenabyakjeungchibang*.

Part of the commentary during the process of registering *Donguibogam*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s a passage that cited the concept of preventive medicine declared in *Donguibogam* as early as the 17th century. In that respect, *Nabyakjeungchibang*, which suggests emergency medicines beforehand and lets people know of their administration, should also be regarded as one of the medical accomplishments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Nabyakjeungchibang*(臘藥症治方),
Eonhaenabyakjeungchibang(診解臘藥症治方),
Jejung Sinpyeon(濟衆新編)

1. 서 언

조선의 의학은 1613년 허준의 『동의보감』 간행 이후 중국과는 구별되는 ‘동의’라는 독자적 의학사상과 독립적 의학지식이 점차 확립 되어갔으며, 이 같은 변화는 특정계층에서 누리고 있던 의료혜택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허준은 『동의보감』 이외에 『찬도방론맥결집성』,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신창벽온방』, 『벽온신방』 등을 저술하였으며, 『납약증치방』 또한 여러 근거에 의해 허준이 저술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조선은 민생을 어지럽게 하던 전염병들이 잦아들어 벽온방류의 간행 등 급격히 돌아가던 의서 편찬도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 무렵 경제사정도 점차 나아져 일반 백성들도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약을 통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는 궁궐은 물론 사대부와 일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쳐 궁궐과 사대부에서 주로 이용되던 응급약인 납약(臘藥)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백성들의 약에 대한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이용 방법과 금기를 안내하기 위한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간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필요성을 『납약증치방』의 권미에 간단하게 밝혀져 있어 『납약증치방』의 간행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¹⁾

『臘藥症治方』은 장영길, 이현숙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장영길(2006)은 ‘『診解臘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에서 책에 등장하는 희귀어휘를 미등재 어휘와 재론이 필요한 어휘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형태와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이현숙(2008)의 ‘『언해벽온신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역사적 의의’에서는 합본되어있는 두 문헌의 연관관계 및 합철 된 연유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화여대 소장본

1) 『臘藥症治方』 권미에 “臘劑各種，証治與使用之法，雖詳載方書，而考閱未易，且遠外窮鄉，雖得刀圭，未知下用之方，人多病之。茲摘古方要語，刊印以傳。”이라 밝히고 있다.

의 특징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하여 고찰하고,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을 비교 검토하여 이후 간행된 의서인 『제중신편』의 ‘내국(內局)’인용과의 연관관계를 밝혀 납약증치방의 의학사적 문헌의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2. 『납약증치방』의 편찬 및 간행

2.1 『납약증치방』 편찬

『납약증치방』²⁾은 환자가 위급에 처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마다 내의원과 지방의 관청에서 특정한 날에 약을 만들어 궁궐내의 사람들과 사대부 및 각 지방의 관아에 나누어 배포하였던 ‘납약(臘藥)’에 대한 기록이다. 납약이란, 조선시대 세시풍속의 하나로 납제(臘劑)라고도 하였으며, 매년 음력 12월 날씨가 추워져서 약재의 부패 및 변패의 우려가 적어 약을 조제하기 좋은 때에 약재를 손질하여 한 해 동안 쓸 응급약인 납약을 만들어 왕실과 사대부에 고루 나누어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지 뒤의 셋째 未日인 납일(臘日)에 궁중의 내의원(內醫院)에서 여러 가지 환약(丸藥)을 지어 올리면 임금은 이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또, 납일에 내린 눈이 약이 된다하여 환약을 만들 때에 이 눈을 녹인 물을 쓰기도 하였다.

납약의 조제는 납약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약재의 공급과 제조 및 분배를 각 기관별로 나누어 담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사가 『각사등록(各司謄錄)』³⁾의 매

2) 납약증치방에는 淸心元, 蘇合元, 牛黃涼膈元, 加減薄荷煎元, 龍腦膏 등 35종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으며, 언해납약증치방에는 牛黃淸心元, 九味淸心元, 蘇合元, 至寶丹, 木香寶命丹 등 37종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언해본 간행 시 35종의 처방에 2종(龍腦安身丸, 牛黃抱龍丸)의 처방을 증보하였다.

3) 각사등록은 1577년(선조 10)부터 1910년까지 지방 각 관아와 중앙과의 왕복문서와 등록류

조문마다 첫 머리를 장식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였을 정도로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연중행사였다. 또한, 『납약증치방』에 나오는 처방은 모두가 응급상황에 쓰이는 약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납약증치방』은 편찬자 및 간행시기, 간행처가 알려져 있지 않은 서적으로서문과 발문 목차 없이 표지에 이어 바로 본문으로 시작하며, 『언해납약증치방』의 경우는 표지에 이어 목차가 한글과 언해로 표기되어 있고 목차에 따른 순서대로 처방명이 나오는 구조이다.

현재까지의 『납약증치방』의 연구로는 허준 편찬설이 유력하다. 그 관련 근거로는 첫째 『태의선생안(太醫先生案)』에 나타난 허준 기록이 출생년을 제외한 모든 기록이 정확하며 그 기록에 의하면, 다른 문헌들과 함께 『납약증치방』이 허준의 작품이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陽川 許浚 清原 丁酉 贈領議政 楊洲 崇祿 扈聖功臣 陽平君 號龜巖 撰東醫寶鑑 痘瘡集 救急方 胎產集 辟瘟方 臘藥症治方” - 『태의선생안』

위의 『태의선생안』 원문의 내용을 보면, “허준, 본관 양천. 자는 청원. 정유년생.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양주 목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있다. 승록대부 호성공신 양평군으로 호는 구암이며 『동의보감』, 『두창집』, 『구급방』, 『태산집』, 『벽운방』, 『납약증치방』을 편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납약증치방』을 허준의 저술이라고 보고 견해가 지배적이다.

허준 저작이라는 주장의 두 번째 근거로는 『납약증치방』에 실린 처방이 『동의보감』에 수록된 처방과 90% 이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납약증치방』에는 청심원(淸心元), 소합원(蘇合元), 우황양격원(牛黃涼膈元), 가감박하전원(加減薄荷煎元), 용뇌고(龍腦膏) 등 35종의 처방 수록되어 있으며, 『언해납약증치방』에는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소합원(蘇合元), 지보단(至寶丹), 목향보명단(木香寶命丹) 등 37종의 처방이 수록되어

(臚錄類)를 해서(楷書)로 탈초하여 편찬한 조선시대 연구의 기초 사료집이다.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있다. 언해본 간행 시 『납약증치방』에 수록된 35종의 처방을 37종으로 용뇌안신환(龍腦安身丸)과 우황포룡환(牛黃抱龍丸) 2종의 처방을 증보하였다. 『언해납약증치방』과 『동의보감』의 처방을 비교 검토하면, 『동의보감』에 없는 처방은 호합인진환(好合茵陳丸), 지성보명단(至聖寶命丹) 2종뿐이다. 이처럼 『언해납약증치방』의 처방이 『동의보감』에 수록된 처방과 90% 이상 일치함으로 이를 근거로 허준의 저작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편찬과정과 편찬 목적을 알 수 있는 서·발문은 없으나 편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납약증치방』 말미에 전한다. 35개의 납약처방이 실려 있는 『납약증치방』 처방 중에 마지막 35번째 처방인 안태환(安胎丸)에 바로 이어 3줄의 글이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臘劑各種，証治與使用之法，雖詳載方書，而考閱未易，且遠外窮鄉，雖得刀圭，未知下用之方，人多病之。茲摘古方要語，刊印以傳。⁴⁾

위의 글을 국역하면, “여러 가지 종류 납약제제 주치증과 사용하는 방법은 비록 처방서에 상세하게 실려 있지만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멀리 떨어진 외방이나 궁벽한 시골에서 비록 의약을 얻었다 할지라도 쓰는 방도를 알지 못해 사람들이 모두 병통으로 여겼다. 이에 고전방서에서 요긴한 말들을 가려 뽑아 책으로 찍어 전하는 것이다.”⁵⁾라고 간행 목적과 의도를 명시하고 있다. 비록 서문이나 발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글을 통해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편찬 목적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다.

2.2 『납약증치방』 내용과 특징

『납약증치방』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면, 『납약증치방』은 일반 한의학 서적

4) 이 글은 『臘藥症治方』 권미에 적혀 있는 글이다. 『언해납약증치방』에는 실려 있지 않다.

5) 안상우, 권오민, 이정화, 臘藥症治方, 『국역 허준의학전서 7』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12), 9-15.

과는 달리 의서이면서도 처방명만을 기술하고 실제 처방의 내용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책의 자세한 기술 방식을 살펴보면, 처방명을 제목으로 내세운 다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복용법, 또 복용할 때 금하여야 할 금기사항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방식은 수록된 납약들이 이미 제제화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책의 간행 의도 또한 이미 제조된 제제를 그 병증별로 복용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기에 수록된 처방인 납약은 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비약이었으므로 이러한 기술 방식으로도 그 목적이 충족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납약증치방』 말미에 편찬 목적이 기록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황청심환을 예로 들면, 이 약은 증풍으로 말을 못하거나 발열이 심해 정신이 아득할 때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금해야 할 음식으로는 붕어, 더운 국수, 복숭아, 오이, 참새, 참조개, 마늘 따위를 조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납약의 수요가 늘면서 병증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납약을 쓰거나 금기를 지키지 않고 납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피해가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로 병증에 따라 올바르게 납약을 복용하기 위한 지침서로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을 간행하면서 금기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언해납약증치방』에는 모두 37종의 납약(상비약)이 실려 있으며 37종의 납약은 각각의 병증에 대응하는데, 증풍에는 우황청심환, 어지럼증에는 목향보명단, 목이 막혔을 때에는 해독응황산, 가슴앓이에는 구통원, 아이가 경기를 심하게 할 때는 안신환 등의 처방이다. 납약만을 골라서 병증과 금기를 연결한 책으로는 『언해납약증치방』이 유일하다. 이것은 이 책이 조선중기 이후 납약 사용에 주요 문헌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⁶⁾ 김매순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⁷⁾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6) 신동원, “臘藥, 『언해납약증치방』, 그리고 허준,” 『한국의사학회지』 Vol.13. No.2(2000), 26-28.

7) 1819년(순조 19) 김매순(金邁淳)이 지은 한양(漢陽)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책.

중국 북경 사람들은 청심환이 다 죽어가는 병자를 소생시키는 신단(神丹)이라 하여, 우리 사신이 북경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공·귀인들이 모여들어 구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왕왕 들볶이는 것이 귀찮아 약방문을 전해주어도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 약방의 경우와 같았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북경 안에는 우황이 없어서 타황(駝黃: 낙타쓸개)을 대용하므로 비록 약방문대로 만들어도 복용해보면 영묘한 효력이 없다”고 한다. 사실여부는 모르겠다.⁸⁾

위와 같이 납약은 조선은 물론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상비 약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납약증치방』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발행된 일반적인 의서들과 다르게 책을 간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 서문과 발문이 없다. 전염병이 유행하던 위급한 가운데서도 그 책의 간행 목적을 서문에 남긴 두창이나 온역류의 문헌에 비하면 특별한 경우이다. 그럼으로 이 문헌은 상시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올바른 복용법과 금기를 안내하기 위한 예방 의약적 차원에서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납약증치방』은 겉표지에 이어 바로 청심원(淸心元)이 나오고 이어 소합원(蘇合元), 우황양격원(牛黃涼膈元) 등이 나오며 총 35종의 납약이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납약증치방』에는 수록된 납약의 목차조차도 실려 있지 않다. 전문은 총 5장 분량으로 본문은 모두 합해야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얇은 책으로 먼저 처방명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이어 복용법과 금기사항을 적고 있어 그 체제 또한 간단하다. 이는 급하게 편찬하였거나 또는 목차 등 번거로운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진 처방임으로 그러한 체제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언해납약증치방』에는 표지 다음 장에 ‘언해납약증치방목록’이라 목차를 표기하고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을 시작으로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소합원(蘇合元) 등 37종의 납약 처방에 대해 한문으로 된 원문과 이에 대한 언해

8) 김매순, “열양세시기,” 『한국명저대전집』 (서울: 대양서적, 1972), 150.

“內醫院及諸營門, 以臘日造諸種丸劑, 公私京鄉, 無不波及, 而淸心元蘇合丸, 最有奇效. 燕京人, 以淸心丸爲起死神丹, 我使入燕, 自王公貴人, 無不聚首來乞, 往往不勝踴躍, 而傳方, 不能成, 與藥飯一般, 亦可異也. 或曰燕中無牛黃, 代用駝黃, 故雖依方造成, 而服之無靈, 未知信否!”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 현존본의 서지적 연구

를 수록하여 목차를 기술하고 있다. 언해본에도 『납약증치방』과 같아서 처방의 방법이나 사용되는 약제에 대하여 기록하지는 않았으며 복용법과 금기사상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내지는 총 74면이다. 『臘藥症治方』과 『診解臘藥症治方』에 수록된 처방명을 비교하면 <표 1>⁹⁾과 같다.

<표 1>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 수록 처방 비교표

No.	臘藥症治方	診解臘藥症治方	비고
1	清心元	牛黃清心元	처방명 변경
2	蘇合元	蘇合元	
3	牛黃涼膈元	牛黃涼膈元	
4	加減薄荷煎元	加減薄荷煎元	
5	龍腦膏	龍腦膏	
6	神保元	神保元	
7	感應元	感應元	
8	溫白元	溫白元	
9	好合茵陳丸	好合茵陳丸	
10	九味清心元	九味清心元	
11	至寶丹	至寶丹	
12	至聖寶命丹	至聖寶命丹	
13	催生丹	催生丹	
14	水煮木香膏	水煮木香膏	
15	九痛元	九痛元	
16	瀉清丸	瀉清丸	
17	稀豆兔紅元	稀豆兔紅元	
18	錢氏安神丸	錢氏安神丸	
19	木香寶命丹	木香寶命丹	
20	捉虎丹	捉虎丹	
21	保安丸	保安丸	
22	靈寶丹	靈寶丹	
23	紫金丹	紫金丹	
24	萬病元	萬病元	
25	小兒清心元	小兒清心元	

9) 안상우 외, “납약증치방 해제,” 『허준의학전서 8』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9.

No.	臘藥症治方	診解臘藥症治方	비고
26	抱龍丸	抱龍丸	
27	玉樞丹	玉樞丹	
28	臘享膏, 蠟香膏	臘享膏	처방명 통일
29	神聖辟瘟丹	神聖辟瘟丹	
30	備急元	備急元	
31	解毒雄黃元	解毒雄黃元	
32	鬼哭丹	鬼哭丹	
33	勝金丹	勝金丹	
34	脾寒丹	脾寒丹	
35	安胎丸	安胎丸	
36	-	龍腦安身丸	처방 추가
37	-	牛黃抱龍丸	처방 추가
합계	35종	37종	2종 추가

2.3 『납약증치방』 간행 및 현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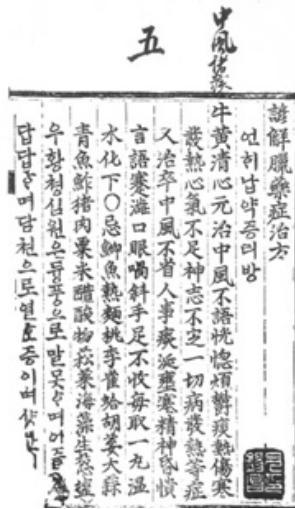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은 두 책 모두 1권 1책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¹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현존본을 살펴보기 위해 기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현존본의 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약증치방』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 68-112)과 서울대 규장각(一叢古 361.5-G939a)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약증치방』만이 단독으로 제본되어 있었으며, 규장각 소장본은 김육의 『구황촬요(救荒撮要)』에 『벽온방(辟瘟方)』과 함께 『납약증치방』이 합철 되어 있었다. 규장각본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납약증치방』은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로 김육의 『구황촬요』과 함께 제본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며, 간행할 당시부터 첨부되어 있었던 것인지 사후 합본된 것이지도 명확하지 않다.

10) 이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편의를 위해 규장각으로 줄여서 사용함.



<그림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그림 2>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인쇄상태도 좋다. 다른 판본과 동일하게 겉표지만이 있을 뿐 바로 본문이 시작되어 있다. 목판본, 내향화문어미로 표지포함 12면으로 본문은 5장으로 10면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납약증치방』은 원문이 디지털화 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¹¹⁾을 통해 원문이 서비스되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 또한 보관 상태와 인쇄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판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구황촬요』에 『벽온방』, 『납약증치방』이 합철되어 있으며 대표서명은 『구황촬요언해』로 되어 있다. 목판본으로 상하내향화문어미이다. 본문은 5장 10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같다.

『언해납약증치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이화여대에 소장되어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c7-78)은 목판본으로 인쇄상태는 좋은 편이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표지가 많이 낡아 있다. 1책 3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판심(版心)에

11) <<http://www.nl.go.kr/korcis/>>.

는 ‘증치방(症治方)’이라고 판심제가 있으며 상하1,2엽화문 어미이다. 반엽광곽(半葉匡郭)의 크기는 21.4×16.8cm으로 불분권이다. 표지서명은 『납약증치방언해(臘藥症治方諺解)』이나 판심서명은 ‘증치방(症治方)’이며 내제(內題)는 ‘언해납약증치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원 제명은 ‘언해납약증치방’이 맞을 것이다.

규장각에는 3종의 『언해납약증치방』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보관상태와 인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목판본으로 1책이다. 10행 18자,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 표지서명은 ‘만춘방(萬春方)’이라 기록되어있는 판본과 ‘납약증치방해(臘藥症治方解)’¹²⁾라고 기록된 판본도 현존한다. 표지에 쓰인 서명이 「만춘방」과 「납약증치방해」로 각기 다른 것이다. 규장각본은 깨끗하고 보관상태도 좋아, 실제 자주 사용되었던 서책이라기보다 보관용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규장각 소장본은 책의 크기가 가로 22.3cm, 세로 33.3cm이고, 반엽광곽이 가로 17.0cm, 세로 20.7cm이다. 사주쌍변으로 10행18자이다.

또한 이화여대 소장본(619벽75)은 『언해벽은신방』과 『언해납약증치방』 두 의서가 합본되어 있으며, 37개 납약의 사용법을 설명한 『언해납약증치방』에 원 소유자가 13개 납약의 조제법을 『동의보감』에서 그대로 베껴 필사해 놓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³⁾

이화여대본 『언해납약증치방』은 목록이 8면, 처방 부분이 6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7×17cm의 면을 사주쌍변(四周雙邊)하였으며, 반엽광곽(半葉匡郭) 유계(有界)의 10행 18자로서, 판심에는 상하내향(上下內向)의 이엽화문어미(二葉花紋魚尾)이다.

이화여대본 『언해납약증치방』을 앞서 언급한 서울대 규장각본과 비교하여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서울대 규장각본은 세 가지[奎3163, 奎3479, 奎5254]로 모두 단행본 형태의 1책 37장이다. 奎3163본과 奎5254본은 奎3479본에 비해 뒤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규장각본은 이화여대본에 비해 책의 크기가 33.3×22.3cm

1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3479.

13) 이현숙, “『언해 벽은신방』과 『언해 납약증치방』의 역사적 의의,” 『한국문화연구』 No.14(한국문화연구원, 2008), 233-235.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 현존본의 서지적 연구

로서 더 크다. 종이의 재질도 이화여대본보다 두껍고 고급이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다. 이화여대본은 규장각본에 비해 종이의 재질도 매우 얇고 민간에서 실제 사용되었던지라 서책의 보존 상태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읽혀졌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겠다.¹⁴⁾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현존본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 현존본 서지사항

	서명	소장처	서지정보	청구기호	비고
1	납약증치방	국립중앙도서관	목판본, 상하내향화문어미, 20.1 × 15.2cm, 5장	古朝 68-112	원문이 디지털화 되어있다. (표지포함 12면)
2	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목판본, 상하내향화문어미, 20.7 × 14.9cm, 5장	一叢古 361.5 - G939a	구황촬요, 벽은방, 납약증치방 합본 (대표서명: 구황촬요언해)
3	언해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목판본, 상하내향화문어미, 20.7 × 17cm, 1책(37장)	奎3163	표지서명 : 萬春方
				奎5254	印記 : 帝室圖書之章
				奎3479	표지서명 : 臘藥症治方解
4	언해납약증치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목판본, 상하1,2엽화문어미, 반곽크기 : 21.4 × 16.8cm, 불분권, 1책(37장)	c7-78	版心書名 : 症治方
5	언해납약증치방	이화여대	목판본, 四周雙邊 半郭 21.4 × 17.3cm, 有界, 半葉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1책(58장)	619 벽 75	언해벽은신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이 합본되어 있다.

14) 이현숙(2008), 260-262.

3. 『납약증치방』과 『제중신편』의 ‘내국’ 인용

『제중신편(濟衆新編)』은 1799(正祖 23)년 정조임금의 명에 의해 어의(御醫) 강명길(康命吉)이 편찬한 종합의서이다. 이 문헌에는 21종의 인용문헌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49건의 신증(新增)한 처방이 인용되어 있다. 『제중신편』에 신증 되어 있는 49건의 처방 중 내의원에서 사용되던 처방 36건을 인용하고 이를 ‘내국(內局)’이라 표시를 하고 있다. 이는 『납약증치방』이 궁중에서 국왕과 그의 가족 및 사대부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의원에서 제제한 응급약인 납약을 일반 백성들이 올바르게 복용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개한 문헌임을 고려할 때, 『제중신편』의 ‘내국’ 인용 처방 또한 궁중의 내의원 처방을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한 예로써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이를 근거하여 두 문헌의 처방명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중신편 ‘내국’ 인용 처방명과 언해납약증치방 비교

제중신편 ‘內局’ 처방명	언해납약증치방	제중신편 ‘內局’ 처방명	언해납약증치방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	목향보명단(木香保命丹)	○
천금광제환(千金廣濟丸)	-	입효제중단(立效濟衆丹)	-
신보원(神保元)	○	소합향원(蘇合香元)	-
사청환(瀉靑丸)	○	감응원(感應元)	○
우황양격원(牛黃涼膈元)	○	용뇌고(龍腦膏)	○
박하전원(薄荷煎元)	-	인진환(茵陳丸)	-
신성벽온단(神聖辟瘟丹)	○	태을자금단(太乙紫金丹)	-
부용향(芙蓉香)	-	의향(衣香)	-
신선태을고(神仙太乙膏)	-	만병무우고(萬病無憂膏)	-
운모고(雲母膏)	-	사유환(蛇油丸)	-
신곡 만드는 법(造神麴法)	-	포룡환(抱龍丸)	○
소아청심환(小兒淸心丸)	○	소독보영단(消毒保嬰丹)	-
제호탕(醞餹湯)	-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
우유죽(牛乳粥)	-	비급환(備急丸)	○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	육향고(六鄉膏)	-
수자목향고(水煮木香膏)	○	신이고(神異膏)	-
가감박하전원(加減薄荷煎元)	○	조전약법(造煎藥法)	-
비한단(脾寒丹)	○	우황포룡환(牛黃抱龍丸)	○

『제중신편』에서 ‘내국’이라 인용된 처방을 『언해납약증치방』에 나타난 처방과 비교 검토하여 보니 36종의 내국 처방 중 17종의 처방이 『언해납약증치방』에 중복하여 수록되어 있었다. 『제중신편』은 정조임금의 명에 의해 『동의보감』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처방들을 보강하여 편찬한 의서이다. 『제중신편』에는 서·발문을 통해 이 책이 향리에서도 백성들이 쉽게 이용하고 실제 의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한다고 편찬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간행한 관찬의서다.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간행 의도 또한 『제중신편』의 간행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납약증치방』 말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 납약제 제 주치증과 사용하는 방법은 비록 처방서에 상세하게 실려 있지만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멀리 떨어진 외방이나 궁벽한 시골에서 비록 의약을 얻었다 할지라도 쓰는 방도를 알지 못해 사람들이 모두 어렵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때문에 고전방서에서 요긴한 말들을 가려 뽑아 책으로 짠 전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제중신편』과 『납약증치방』은 간행목적이 변방에서도 널리 의서를 찾아보게 하려는 편찬의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언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은 응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제를 미리 만들어 보관해 두었다가 긴급하게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한약제제의 복용법과 금기사항을 기록한 일종의 투약지침서이다.

이 문헌은 『태의선생안』의 기록에 근거하여 허준(1539~1615)이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납약증치방』에 수록된 약제가 2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보감』에도 수록되어 있는 점에도 근거한다.

당시 조선의 경제 사회적 수준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기에 따라 돌림병 등 역병에 대응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방역의서를 편찬하던 차원

을 넘어 일반 백성들까지도 건강과 장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비약의 구비를 통한 건강과 장수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로 왕실과 사대부에서 활용되던 납약이 일반대중에게까지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 약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납약을 만드는 방법, 즉 처방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대신 복용방법과 금기사항만을 정리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언해본을 간행함으로써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의약지식을 보급하고 이를 보편지식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궁정의학으로부터 민중의료로 확산되는 시발점으로 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납약증치방』은 한문본과 언해본 2종 모두 보존되어 전하고 있음으로써 그 가치가 주목되고 있다.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심사평 가운데 『동의보감』의 17세기에 이미 예방의약의 개념이 천명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있다. 이에 의한다면 동시기에 허준이 편찬에 관여하여 저술로 등장하고 있는 『납약증치방』 역시 당대 조선의학이 이룩한 의학사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原典

- 『납약증치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朝68-112.
- 『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一叢古361.5-G939a.
- 『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3163.
- 『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5254.
- 『언해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3479.
- 『언해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c7-78.
- 『언해납약증치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619벽 75.

2. 단행본

김매순. “열양세시기.” 『한국명저대전집』. 서울: 대양서적, 1972.

3. 논문

김성수. “16-17세기 중앙의료 기구의 운영실태.” 『서울학 연구』 20집(2002). 65-100.

신동원. “臘藥, 『언해납약증치방』, 그리고 허준.” 『한국의사학회지』 Vol.13. No.2. (2000). 26-28.

안상우, 권오민, 이정화. “납약증치방.” 『허준의학전서 8』.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9-10.

안상우, 권오민, 이정화. “납약증치방.” 『국역 허준의학전서 7』.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한의학연구원, 2012. 9-15.

이정화. “『제중신편』현존본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267-293.

장영길. “『諺解臘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 『반교어문연구』 통권21호(2006). 5-32.

이현숙. “『언해벽온신방』과 『언해납약증치방』의 역사적 의의 - 이화여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통권14호(2008). 233-271.

4. 전자자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